

방송의 심장 '송출'을 외부에 넘길 텐가? 기술 주권 포기 규탄한다!

최근 사측은 CNC TV 송출 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CBS 방송기술인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송출 대행 추진으로 인해, 20여 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해 온 차세대 송출 시스템 전환 로드맵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다. CBS 방송기술인협회는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사측의 판단 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직접 송출 포기는 곧 방송의 '품질'과 '신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TV 방송 송출은 버튼 몇 개만 누른다고 성립하는 단순 기계적 노동이 아니다. 콘텐츠의 최종 품질을 검수하고, 장애 발생이나 재난 방송 등 긴급 상황에서 전송 안정성을 사수하는 최종 관문이며, 전문 영역이다. 우리 방송사의 고유한 편성 호흡과 내부 시스템의 유기적 특성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력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다수의 방송사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행업체의 태생적 한계상, 지금과 같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책임감 있는 복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2. 송출 외주화는 '기술 종속'을 자초하고, 미래에는 '비용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방송 기술의 최종 관문인 송출을 외부에 넘기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CBS의 기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내부 기술 역량이 약화하고 나면 CBS는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식물 방송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행업체의 영향력은 비대해질 것이고, 주도권을 잃은 CBS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행료를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자체 기술력을 상실한 뒤 맞닥뜨릴 대행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계약 변경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미래의 생존권을 담보로 눈앞의 적자를 메우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협회 역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심장인 송출 기능을 구성원과의 논의 한 번 없이 외주화하려는 사측의 일방통행은 '혁신'이 아니라 '폭력'이다. 기술국은 송출 기술 발전과 방송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CNC 역량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전문 송출 시스템 구축, AI 기반 네트워크·전송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콘텐츠 품질 강화 등 차세대 방송기술과 CNC 시스템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준비해 왔다. 송출 외주화는 이 모든 청사진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사측의 결정은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CBS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말살하는 조치다. 외주화가 강행된다면 CBS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기술 주도권을 영영 잃게 될 것이다.

변화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치열한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 CBS 방송기술인협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배제한 사측의 독단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송출 대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경영 논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기술 포기'는 결국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측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해 CBS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9일
CBS 방송기술인협회